

조계종, 6월 판문점서 ‘한반도 종전선언 기원대회’ 봉행

원행 스님, 1월15일 한국전쟁 70년 맞아 평화정착 나설 것
“불교교류로 경색관계 풀겠다”... 문화제 공동발굴 등 제안

조계종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은 1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조계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남북 민간교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지나간 70년을 뒤로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전쟁보다는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원대회에는 북측의 종교인들을 초청하고 남측의 모든 종교인들



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여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행 스님은 또 “남과 북이 함께 보존하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은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민족의 자산이요 동시에 문화적 힘”이라면서 남북불교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은 북측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 발굴과 복원을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신계사 발굴과 복원의 경험을 되살려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제는 본래의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북

한사찰 문화재를 북한 사찰에 모실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계종은 북측과의 문화재교류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 일본에서 환수한 평양 만경대 범운암 칠성도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북측의 전통불교문화 유산을 복원·보존·활용해 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사업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불교 공동사업 추진과 북측의 생태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산림복원을 위해 사찰림 활용을 위한 공동사업도 제안할 방침이다.
원행 스님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결코 우리 민족의 뜻대로만 진행되도록 놓아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먼 옛날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지리산과 가야산에서 우리 민족의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백적간두에서 한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조속히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교역협력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원행스님·김정숙 여사, 새해맞이 등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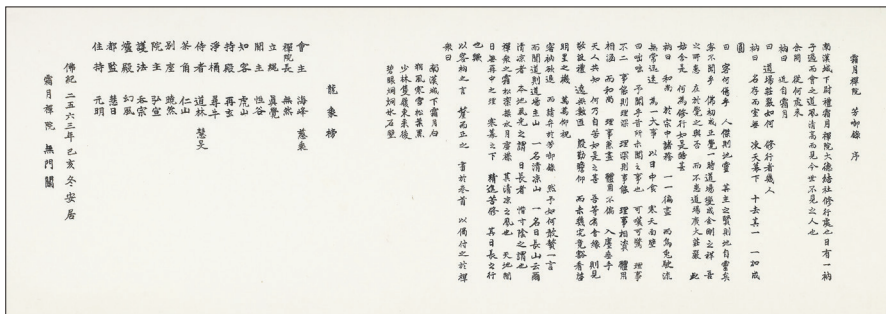
원행 스님과 김정숙 여사가 1월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불기 2564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서 국운 융창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문덕 스님, 회성 정사, 홍파 스님, 호명 스님, 인선 정사, 만청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장·관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 관련기사 2면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용상방’ ‘방함록서’ 공개

대종사 해거 스님이 정리해 작성
선원 연혁·배경 담긴 전통 복원

‘남한산성 아래 휘영청 밝은 서리달빛/ 삭풍한설에 솔잎마저 꿈꿨 일어 검푸르다/ 달마 스님 법맥이 우리나라 전해온 오늘/ 밝고 밝은 선객 눈빛 차가운 전막 아래 빛나네.’

용맹정진 중인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소임을 적어놓는 ‘용상방(龍象榜)’과 ‘방함록서(芳簾錄序)’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월선원 도감 해일 스님은 1월15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용상방 및 방함록서를 공개했다. 상월선원 동안거 용상방 및 방함록서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이자 조계종 대종사인 해거 스님이 직접 내용을 정리해 글씨를 썼다.
용상방은 결제나 큰 불사가 있을 때 각자의 소임을 기록해 붙이는 방이고, 방함록은 안거대중의 범명 등 인적사항 등을 적어두는 기록이다. 방함록서는 방함록



위례 상월선원에서 동안거 천막결사 진행 중인 대중들의 소임을 적어놓는 ‘용상방’.

첫머리에 붙는 일종의 소개문으로 사찰의 연혁과 특징, 안거대중 소개, 인연, 발원 등이 담겼다. 과거 개별 사찰에서 방함록을 작성해 기록할 때는 방함록서가 포함됐으나,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방함록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잊힌 전통이다.
해일 스님은 “9명 스님들이 11월11일 결제에 들어간 후 용상방과 방함록 작성에 도움을 청하고자 해거 스님을 찾아보았다”며 “언론을 통해 상월선원과 스님들의 용맹정진 소식을 접한 스님께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대원력에 동장

의 뜻으로 흔쾌히 승낙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용상방, 방함록과 함께 젊은 스님들에게는 낯선 방함록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전통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작성해보겠다고 먼저 말씀했다”며 “수좌 정목 큰스님이 선원의 이름을 짓고, 종정 진제 예하가 현판을 내려주고, 용상방과 방함록서를 해거 대종사가 작성해 주는 등 상월선원은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여법한 수행처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 3면에서 계속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교도소·군법당에 법보시를
010-4655-7010 문자
‘법보시’ 보내주세요

교도소, 병원법당, 군법당에 법보신문을 보내는 법보시캠페인을 전개합니다. 010-4655-7010으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한 장의 신문은 통해 수용인, 군인, 환우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 참여로 정토세상을 만들어가는 법보시캠페인은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과 함께 합니다.
■ 1구와 2부 월 1만원
■ 문의 : 02)725-7010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전통다비장 추진

1월13일, 평창 워크숍서 제시
“수도권 사찰과 실무 논의 중”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전용 다비장을 추진한다. 장소와 비용 등의 문제로 전통 다비 방식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이 소속 문중이나 교구에 구애받지 않고 비구니사찰에 갖춰져 있는 다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가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 12대 집행부는 1월13일 평창 자연명상마을에서 열린 첫 워크숍에서 12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공개하며 비구니스님 전통 다비장 추진을 제시했다.
전구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스가 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이날 종책사업 청사진을 설명하며 “다비장이 가능한

기존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구니스님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통 다비장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새 다비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구니사찰의 다비시설을 비구니스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다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등의 사찰 2, 3곳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온 상태이며 전국비구니회와의 업무협약 등 실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구니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 등 전반적인 장례절차와 순서, 필요한 준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원로급 비구니스님의 입적 시 위의를 맞는 여법한 장례절차 기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서 비롯됐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쑥삭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